

배우자 보험살인 사건 판단에 피고인 성별과 연령, 판단자 성별이 미치는 영향*

김 유 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배우자 살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가정폭력이나 부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건과 이에 대한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고인 성별과 연령, 판단자 성별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 피고인은 남성 피고인보다 보통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젊은 피고인이 노인 피고인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과받았다. 양형 판단 결과,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여성 참가자들은 남성 참가자들보다 젊은 남성 피고인에게 유의하게 긴 형량을 부과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여성 참가자들은 노인 여성 피고인보다 노인 남성 피고인에게 짧은 형량을 부과한 반면 남성 참가자들은 노인 남성 피고인보다 노인 여성 피고인에게 짧은 형량을 부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살인에 대한 처벌판단이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편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사법적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배우자 살인, 배우자 보험살인, 피고인 성별, 판단자 성별, 피고인 연령, 처벌판단

* 본 논문은 2024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교신저자: 김유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E-mail: whitesky1126@korea.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부부는 가족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이상호, 2012),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이다(조설애, 2021).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부부는 관계가 장기화되면서 필연적으로 배우자의 단점을 발견하고 갈등과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며, 극단적인 결과로 살인이 발생하기도 한다(박순진, 2006; 백수진, 2011). 배우자 살인을 유발하는 동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부부 간 갈등이나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거나 보험금 또는 상속 재산 등의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 또한 배우자 살인을 유발할 수 있다(신식, 2007; 장인권, 2010).

금융감독원(2022)이 2012~2021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 원 이상의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배우자(44.1%)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해자는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가장 많았으며(35.5%), 여성(51.5%)이 남성(48.4%)보다 많았다. 따라서 배우자 보험살인 사건은 가정폭력에 대한 자기방어나 보복(김시업, 2006), 외도나 부부 간 갈등(박순진, 2006; Campbell, Glass, Sharps, Laughon, & Bloom 2007) 등의 동기에서 비롯된 배우자 살인과 비교할 때 가해자가 노인인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 성비에 큰 차이가 없거나 여성이 근소하게 많은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가 가정폭력이나 부부 간 갈등과 같이 참작 또는 보통의 동기에서 비롯된 살인에 치우쳐 있어 보험금 등 재물 취득과 같이 비난할 사유에 의한 동기에서 비롯된 살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건을 다루고자 한다.

한편 그동안 피고인 연령이 범죄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선행연구는 드물며, 그마저도 대부분 연령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설정하여 노인 피고인의 존재가 간과된다(송승주, 2022). 이는 노인의 생리적·신체적 기능이 퇴화되고, 타인에 대한 의존성과 수동적·내향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등 정신적 능력의 약화로 범죄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힘들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존재하며(이영란, 2011; 허경미, 2004), 고령범죄의 발생 빈도가 적어 형사사법기관의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승철, 2009). 따라서 피고인 연령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었으며(Mueller-Johnson & Dhami, 2009; Pica, Pettalia & Pozzulo, 2017), 연구 결과 또한 비일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 연령의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보았기 때문일 수 있다. 노인 범죄자는 젊은 범죄자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경향이 관찰되지만(Champion, 1987; Steffensmeier, Kramer & Ulmer, 1998; Wilbanks, 1988), 노인 피고인이라도 성별에 따라 상이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성별이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피고인 성별과 피고인 연령 간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Winters, Collins, Kaylor, & Jeglic, 2020).

그동안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다. 그중, 악녀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Herzog & Oreg, 2008; Tillyer, Hartley & Ward, 2015).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한국과 같이 유교적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는 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질 수 있는데, 유교 이데올로기가 사회 구조와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 범죄자에 대한 처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Hsu & Wu, 2011). 따라서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여성은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남편으로부터 자기방어를 위하여 살인을 저지른 여성과 달리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을 벗어난 것으로 여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Kim, Gerber & Kim, 2018).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남성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노인 여성은 노인 남성보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성별에 따라 노화에 대한 이중적인 연령 규범이 적용되어(이기선, 이정화, 2020), 노인 남성은 경제적 독립을 이룬 존재인 반면 노인 여성은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타인에 의존적인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홍현방, 2009). 노인 여성은 아내이자 어머니, 며느리로서 가족 내의 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 요구되어 부부간 성별 권력에 기인한 폭력이나 부당한 시집살이 등으로 고통받더라도 가족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하는 존재로 인식된다(이동욱, 2023). 악녀 이론에 따르면 배우자 보험살인을 저지른 노인 여성에게 무거운 처벌을 부과해야 하지만, 노인 여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판단자 성별 또한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자는 동성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더욱 긴 양형을 부과한다(McKelvie, 2002). 특히 여성은 정서적으로 민감하여 피해자를 동정하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반면 남

성은 자신을 가해자와 동일시하는 정도가 높아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관찰된다(Goulding, Yozwiak, Kinstle & Marsil, 2005). 또한, 여성은 자신을 소수집단으로 인식하여 남성보다 소수집단에 동질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다(원숙연, 2017). 여성이 남성보다 성별 유사성을 느끼는 정도가 높고(김유진, 김민지, 2021), 여성이 노인 여성을 우호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Hawkins, 1996; Manzi, Adorni, Giannella & Steca, 2024; Rupp, Vodanovich & Credé, 2005), 여성은 노인 여성 피고인에게 더욱 관대한 처벌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배우자 보험살인 사건 판단에 판단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피고인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지 살펴보고자 한다.

배우자 보험살인

부부는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배우자 개인에게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로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이다(조설애, 2021). 부부는 원초적·일차적 관계로 관계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갈등이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며, 갈등이 발생할 경우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극단적인 결과로 살인이 발생하기도 한다(박순진, 2006; 백수진, 2011). 그동안 다수의 선행연구는 범행 동기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으며(Kim, Gerber & Kim, 2018), 주된 범행 동기로 갈등으로 인한 분노에 따른 통제력 상실, 성적 질투, 폭력에 대한 자기방어에 초점을 두었다(김성희, 이수정, 2022; Aldridge & Browne, 2003; Belknap,

Larson, Garcia & Anderson-Block, 2012). 그러나 금전적 이익을 얻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욕구 또한 범행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이병희, 2001; 홍영오, 김빛나, 손지선, 2019; Kim, Gerber & Kim, 2018; Thomas, Dichter & Matejkowski, 2011).

이러한 동기에서 비롯된 배우자 보험살인은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피보험자인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사망이 예견되는 배우자를 고의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고 또는 자연사로 위장하는 보험범죄이다(허영록, 이수정, 2019).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보험살인의 대상은 배우자인 경우가 많다(김유진, 김민지, 2021). 1975~2000년에 발생한 보험살인의 피해자는 배우자(약 57%)가 가장 많았고, 남편(69%)의 비중이 컸다(이병희, 2001). 금융감독원(2022)이 2012~2021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 원 이상의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35.5%), 배우자(44.1%), 여성(51.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배우자 보험살인의 가해자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그중에서도 60대 이상의 고령 여성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연령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2024년 12월 23일 기준 한국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약 1,0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

했다(행정안전부, 2024). 노인 범죄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5년간(2019~2023년) 강력 범죄 피의자 연령 구성비는 피의자 비율이 증감을 반복하거나 감소 추세인 다른 연령대와 달리 61세 이상 피의자의 비율이 2019년 14.8%에서 2023년 17.8%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경찰청, 2024). 인구 증가로 범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노인 인구 대비 노인 범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과거와 달리 노인 범죄가 유행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영란, 2011).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노인 관련 문제는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다루어졌으나, 범죄학의 측면에서는 활발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노인이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로 간주되어 가해자보다 피해자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노인에게 의한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큰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승철, 2009; 주재진,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분야에서 피고인 연령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능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어왔다(이민식, 2012).

그러나 그동안 연령이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다수의 연구는 피고인 보다는 피해자 또는 목격자 연령의 역할을 살펴봐왔다(Pica, Pettalia & Pozzulo, 2017). 그마저도 대부분 피고인 연령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설정하여 노인 피고인의 존재를 간과하였거나(Semple & Woody, 2011; Sheahan, Pica & Pozzulo, 2021), 재판 기록이나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지 못하였거나(Mueller-Johnson & Dhimi, 2009), 통제 변인

으로만 다루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이민식, 공정식, 이수정, 2009).

노인 피고인은 젊은 피고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Champion, 1987; Wilbanks, 1988), Steffensmeier와 Kramer, Ulmer (1995)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잔존생존기간이 청장년보다 짧은 노인의 특성상 젊은 피고인과 동일한 기간의 형량을 받더라도 노인 피고인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인식된다(이영란, 2011). 둘째, 노인은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하여 건강 및 식단 관리, 의료 처우 측면에서 젊은 범죄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이민식, 2012). 셋째, 노인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아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낮으므로, 교정시설 수감보다 복지의료시설을 통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Mueller-Johnson & Dhami, 2009). 마지막으로, 노인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에 반성의 태도를 보여 재판관의 동정과 연민을 유발한다(박미량, 2017). 이를 종합하면, 노인 피고인은 젊은 피고인보다 관대한 처벌판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노인 여성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병약하고, 비활동적이며(김완태, 조문기, 2015),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어렵고, 비생산적인 존재이다(이신숙, 2007). 이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의존적 존재로 인식되는데, 이러한 시각은 노인을 종속적인 지위에 머물게 하고 차별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이동우, 2017).

그러나 노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은 연령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노인 여

성은 성별과 연령이라는 2가지 요인에 근거하여 중층적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존재로(이동욱, 2016), 노인 여성과 노인 남성, 그리고 노인 여성과 젊은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은 다를 수 있다. 즉, 노인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다중차별로서 성별과 연령 요인이 독립적으로 기능한 결과가 아닌 이들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발생한다(정순돌, 장명선, 이은진, 송보가, 김재민,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노인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간과되었다.

먼저 성별 측면에서 노인 여성과 노인 남성은 달리 인식된다. 남성의 노화는 여성의 노화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노인 남성은 유능하고, 덜 의존적인 존재로 여겨진다(홍현방, 2009; Canetto, Kaminski & Felicio, 1995). 이는 노년 세대가 전통적 성 역할 규범에 따라 남성은 생계부양자로, 여성은 아내이자 어머니, 며느리의 역할을 수행해온 것과 연관된다(이동욱, 2023). 노인 여성은 부당한 시집살이와 부부 간 성별 권력 차이로 인해 폭력에 취약하지만, 사회적으로 인내와 희생, 침묵을 미덕으로 강요받아 이를 감내해왔다(Hochschild, 2009). 한국 사회에서 노인 여성은 가난하고 무지하며, 도움이 필요한 복지의 수혜자로 인식된다(이기선, 이정화, 2020; 이동욱, 2016). 이처럼 노화는 여성의 수동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동욱, 2014).

다음으로, 연령 측면에서 노인 여성은 젊은 여성과 달리 무용한 존재로 여겨지며, 미디어 또한 여성의 외모와 나이를 강조하여 젊은 여성을 노인 여성보다 매력적인 존재로 재현한다(김보람, 2023; 김은정, 2021). 이는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의 신체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젊은 여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Kaplan, 1999).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여성의 가치는 젊음이나 외모를 기준으로 평가된다(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1). 노인 여성은 노화와 함께 환경을 경험하며, 여성성과 성적 매력, 재생산 능력을 상실한 무성적 존재로 간주된다(이동욱, 2014). 근대 한국 사회는 이상적인 결혼 적령기와 ‘정상적인’ 여성의 삶을 규정하여 성별-연령 체제를 통한 여성의 범주를 구축하였다(전희경, 2013). 그러나 노인 여성은 이러한 범주를 벗어난 존재로 젊은 여성보다 낮은 지위에 머물게 된다.

비록 노인 여성은 경제적 취약성과 소외로 인하여 차별을 경험하지만, 이들의 취약성은 오히려 동정과 연민으로 이어져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빈곤층이나 장애인,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적어 규범을 위반하더라도 책임 정도가 낮다고 여겨지고,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조병철, 김혜숙, 2018; Weiner, Osborne & Rudolph, 2011). 또한, 타인으로부터 동정의 대상이 될 경우, 행위를 용서 받을 가능성이 커져(Eaton & Struthers, 2006), 특히 범법행위를 명백히 저질렀다고 확신하기 어려울 때 우호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병철, 김혜숙, 2018).

한국 사회에서 노인 여성은 배우자와 노부모 돌봄, 손자녀 양육 등 가족을 위한 가사 및 돌봄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노인 남성보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이기선, 이정화, 2020; 이현주, 2015; 한정란, 2000). 노인 여성은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긍정적 이미지도 함께

지닌다. 이는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쳐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되는 노인 여성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노인 남성이나 젊은 여성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가 피고인 연령의 독립적인 효과를 주로 다루었으나, 피고인 성별과 연령이 결합할 때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피고인 연령에 따라 처벌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이 밝혀졌으나 대부분 노인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 차이 또는 여성의 노화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고인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체계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피고인 성별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 성별은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Winters, Collins, Kaylor & Jeglic, 2020).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배우자 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여성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향이 발견되었다(Auerhahn, 2007; Franklin & Fearn, 2008; Johnson, Van Wingerden & Nieuwbeerta, 2010). 이는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을뿐더러 형사사법체계가 여성을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남성을 여성의 보호자로 간주하여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Franklin & Fearn, 2008; Lutze & Symons, 2003).

그러나 여성 가해자의 증가로 성인지적 시각을 반영한 이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서은경, 2015), 기사도/온정주의 이론(Paternalism/

chivalry theory)과 이중 일탈 이론으로 일컬어지는 악녀 이론(Double Deviance theory, The Evil Woman theory) 등을 통하여 가해자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를 설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Lu, Liang & Liu, 2013). 전통적 성 역할 규범에 따르면 남성은 독립성, 지배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여성은 양육성, 의존성, 수용성을 특징으로 한다(김경미, 양혜영, 2005).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자로, 여성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가족을 보살피는 존재로 규정되었다(원숙연, 2014). 한국과 같이 유교 이데올로기가 사회 구조와 여성의 역할, 여성 범죄자의 처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경우(Hsu & Wu, 2011), 전통적 성 역할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여성은 남성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여성보다 남성 판단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남성의 성 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김유진, 김민지, 2021).

그중에서도 악녀 이론은 남성 가해자보다 여성 가해자의 처벌이 엄격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여성 가해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여성에게 주어진 성 역할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이중 일탈자로 간주되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Herzog & Oreg, 2008; Tillyer, Hartley & Ward, 2015). 일반적으로 폭력은 남성다움과 연관되기 때문에 남성의 폭력은 공격성, 지배성, 통제적인 성향에 기인하는 반면 여성의 폭력은 자기방어와 같이 상황적 요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 여겨져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Bates, Klement, Kaye & Pennington, 2019). 그 외의 여성은 여성다움

과 동떨어진 악한 존재로 여겨져 처벌에 정당성이 부여된다(김유진, 김민지, 2021; Denno, 1994). 만약 성적 목적이나 재물 취득처럼 전통적 성 역할 규범에 위배되는 범행 동기로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은 자기방어나 복수 또는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보다 긴 형을 받게 된다(Kim, Gerber & Kim, 2018). 남편이나 자녀를 살해한 여성 또한 아내나 자녀를 살해한 남성보다 사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손지선, 이수정, 2007; Messing & Heeren, 2009), 이론의 유효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동안 악녀 이론을 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가해자 성별에 따라 처벌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하였으나, 처벌 수준의 차이를 유발하는 또다른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악녀 이론에 따라 전통적 성 역할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저지른 여성을 남성보다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 역할 고정관념 수준에 따라 남녀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판단자 성별은 성 역할 고정관념 수준과 특히 유의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김유진, 김민지, 2021; 신원우, 2017),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에도 종종 간과되었다(ForsterLee, ForsterLee, Horowitz & King, 2006).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유사한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많은 공통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Foley, Linnehan, Greenhaus & Weer, 2006). 특히 성별 유사성 지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두드러진다(Elkins, Phillips, Konopaske & Townsend, 2001). 여성은 자신을 소수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남성보다

소수집단에 대한 동질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원숙연, 2017).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볼 때 판단자들은 동성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판단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여성 판단자에게 두드러질 수 있다(김유진, 김민지, 2021).

한편, 노인 여성은 젊은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집단으로 여겨지며, 돌봄과 희생의 이미지를 지닌다. 따라서 판단자들은 노인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처벌판단 시 노인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때 남성보다 여성이 노인 여성을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된다(Hawkins, 1996; Manzi, Adorni, Giannella & Steca, 2024; Rupp, Vodanovich & Credé,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참가자 성별이 피고인 성별과 피고인 연령과 상호작용하여 처벌판단에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성별 유사성 지각과 소수집단에 대한 동질감, 그리고 노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노인 여성 피고인에게 가장 관대한 처벌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 1. 여성 참가자들은 남성 참가자들보다 노인 여성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치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여성 참가자들은 남성 참가자들보다 노인 여성 피고인에게 가장 약한 형량을 부과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설문조사 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하여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총 400명으로, 남성과 여성 각각 200명이었다. 시나리오의 내용을 묻는 3개의 문항을 삽입하여 모두 정답으로 응답한 연구 참가자만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오답으로 제외된 연구 참가자가 없어 모든 응답을 활용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4년 5월 28일~31일에 진행되었다. 시나리오는 다른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특정 변인이 판단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유용하므로(Evans et al., 2015),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피고인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구성된 4가지의 시나리오 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었다. 시나리오는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것을 사용하였다(김유진, 김민지, 2021). 시나리오를 읽은 후 처벌판단에 관한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문항에 응답하였다. 시나리오는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대전지방법원 2017도1549)를 참고하여 객관적 사실 위주로 A4 1장 분량으로 정리하였다. 독립변인의 조작이 이루어지는 부분(피고인 성별, 피고인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구성하여 외생 변인의 개입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연구 변인

독립 변인은 피고인 성별과 연령, 연구 참가자 성별이다. 피고인 연령은 30대 중반과 70대 중반으로 구분하였다. 30대 중반의 경우, 2023년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과 여성이 각각 34세와 31.5세로 30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영하였다(통계청, 2023).

한편, 노인의 시작 연령은 크게 사회연령 방식과 역연령 방식으로 정의된다(최혜지, 2016). 사회연령 방식의 경우 노인의 시작 연령은 사회마다 다르지만 관습적으로 환갑을 중요한 의례로 치렀던 한국 사회에서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반면 역연령 방식의 경우 독일 노령연금 개시 연령을 참고하여 65세 이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시작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70대 중반으로 설정하였다(이윤경, 2021).

종속 변인인 처벌판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처벌 유형 판단은 피고인을 어떠한 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보통살인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사) 중 1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둘째, 양형 판단은 피고인에게 몇 년의 형을 부과하면 좋을지 5년 이상을 연 단위로 응답하게 하였다. 5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살인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연구 참가자 성별: 남성/여성)x 2(피고인 연령: 30대 중반/70대 중반)x2(피고인 성별: 남성/여성) 피험자 간 요인설계로 설계되었으며, SPS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처벌 유형 판단에 피고인 성별과 연령, 연구 참가자 성별이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 보았다. 분석을 위하여 성별은 남성=1, 여성=0으로, 피고인 연령은 30대 중반=1, 70대 중반=0으로 측정하였다. 처벌 유형은 보통살인죄=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사)=0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삼원분산분석(3-way ANOVA)을 실시하여 양형 판단에 피고인 성별과 연령, 연구 참가자 성별이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결 과

기술통계분석

기술통계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200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만 44.05세였고 (SD=13.424, 범위: 만 20~69세),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각각 80명(20%)이었다. 양형의 최솟값은 5년, 최댓값은 99년이었다.

처벌 유형 판단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

표 1. 처벌 유형 판단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Exp(B)	B	Exp(B)	B	Exp(B)
피고인 성별	-.470* (.047)	.625	-.499 (.247)	.607	-.251 (.618)	.778
피고인 연령	.083 (.724)	1.087	.213 (.596)	1.238	.418 (.363)	1.519
참가자 성별	.415 (.080)	1.515	.213 (.596)	1.238	.418 (.363)	1.519
피고인 성별 x피고인 연령			.063 (.894)	1.065	-.325 (.607)	.723
피고인 성별 x참가자 성별			.393 (.414)	1.481	-.055 (.936)	.947
피고인 연령 x참가자 성별			-.378 (.428)	.685	-.894 (.222)	.409
피고인 성별 x피고인 연령 x참가자 성별					.908 (.349)	2.478
상수	-1.179***	.308	-1.155***	.315	-1.266***	.282
Model X2(df)	7.176(3)		8.476(6)		9.359(7)	
-2LL	435.979		434.680		433.796	

*p<.05

다. 모형 1은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 2와 모형 3은 독립 변인과 상호작용항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 1에서 독립 변인 중 피고인 성별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여성 피고인은 남성 피고인보다 보통 살인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모형 3에서 피고인 성별과 연령, 연구 참가자 성별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가설 1을 지지하지 못하였다.

양형 판단

삼원분산분석 결과를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피고인 성별과 연령, 연구 참가자 성별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나, 가설 2를 입증하지는 못하였다($F(1, 392) = 4.111, p = .043$). 추가로 대응별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4와 그림 1,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대응별 분석 결과, 여성 참가자들은 30대 남성 피고인에게 가장 긴 형을 부과하였으며,

표 2. 양형 판단에 대한 삼원분산분석 결과

변인	df	F	n ²	p
참가자 성별	1	2.433	.006	.120
피고인 성별	1	.152	.000	.697
피고인 나이	1	17.954***	.044	<.001
참가자 성별 x 피고인 성별	1	1.827	.005	.177
참가자 성별 x 피고인 나이	1	1.136	.003	.287
피고인 성별 x 피고인 나이	1	.195	.000	.659
참가자 성별 x 피고인 성별 x 피고인 나이	1	4.111*	.010	.043
오차	392	(59.193)		

*p<.05, ***p<.001

표 3. 삼원분산분석에 따른 양형 차이

참가자 성별	피고인 성별	피고인 나이	M	SD
남성	남성	30대	9.66	6.583
		70대	8.44	5.273
	여성	30대	14.28	14.658
		70대	7.96	4.120
여성	남성	30대	11.62	7.732
		70대	8.30	4.469
	여성	30대	11.04	7.620
		70대	8.86	5.736

표 4. 대응별 비교 분석 결과

피고인 성별	피고인 연령	참가자 성별(I)	참가자 성별(J)	평균 차이(I-J)	p
남성	30대	남성	여성	-4.620**	.003
		여성	남성	4.620**	
	70대	남성	여성	.140	.928
		여성	남성	-.140	
여성	30대	남성	여성	.580	.706
		여성	남성	-.580	
	70대	남성	여성	-.900	.559
		여성	남성	.900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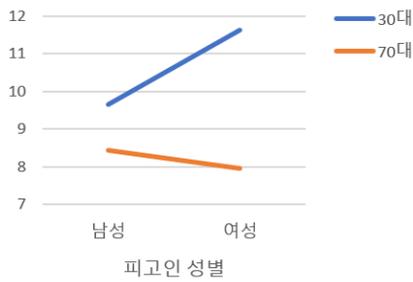


그림 1. 남성 참가자의 양형 판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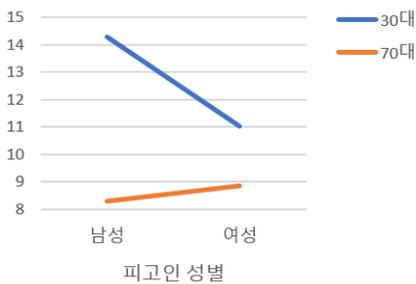


그림 2. 여성 참가자의 양형 판단 결과

남성 참가자가 부과한 형량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 참가자들은 70대 남성 피고인에게 가장 짧은 형량을 부과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 참가자들은 30대 여성 피고인에게 가장 긴 형을 부과한 반면 70대 여성 피고인에게 가장 짧은 형을 부과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배우자 보험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에 피고인 성별과 연령, 연구 참가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삼원분산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처벌 유형 판단에서 피고인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삼원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 참가자들이 피고인 연령보다 성별을 더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피고인 성별의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범위를 저지른 남성과 여성 중 여성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악녀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피고인 연령은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은 신체 건강 저하로 인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 알려져 있으며(신원우, 201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는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닌 배우자 보험살인 사건으로,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계획적 범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연구 참가자들은 피고인 연령보다 성별을 더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고려했을 수 있다. 양형 판단 결과, 피고인 성별이 아닌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피고인 성별은 사건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반면 피고인 연령은 양형 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연구 참가자들이 피고인 성별과 연령, 연구 참가자 성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더라도 처벌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형 판단의 경우, 연구 참가자들은 양형 결정 시 최저 형량 이상의 기간을 자유롭게 기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긴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반면 보통살인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사)는 각각 고의와 과실에 의해 타인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각 처벌 유형이 적용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이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만으로 피고인의 의도와 고의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연구 참가자들이 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판단에 혼란을 느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법적 개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여 연구 참가자들의 법적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형 판단 결과,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나 그 방향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았다. 먼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 참가자들은 젊은 남성 피고인에게 가장 긴 형량을 부과하였으며, 남성 참가자들이 부과한 형량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난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전체 범죄 중 가해자는 남성(약 78%)이 여성(약 22%)보다 훨씬 많았다. 강력범죄로 한정하더라도 가해자는 남성(약 95%)이 여성(약 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2023년에 발생한 살인 사건 중 검거된 범죄자와 살인기수 범죄자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았다.¹⁾ 일반적으로 여성이 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은 남성보다 낮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범죄 두려움 수준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n, 2008). 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과 연관되는데, 남성과 달리 여성은 두려움과 같은 정서를 표현하도록 허용되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조은경, 2003). 따라서 여성 참가자들은 노인 남성보다 젊은 남성에게 대한 범죄 두려움 수준이 높아 젊은 남성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배우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 피고인의 형량은 젊은 피고인보다 낮았는데, 이는 노년기의 특성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노화로 인한 전반적인 신체 건강 문제를 경험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반응 능력의 저하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신원우, 201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39,614건으로 전년 대비 4,962건 증가하였다. 언론 또한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증가를 노인의 특성과 연결지어 수치를 활용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관찰된다(오현정, 신경아, 2019). 이를 통하여 연구 참가자들은 노인에게 의한 교통사고가 약화된 신체 능력에 기인하며, 사망보험금 수령을 범행 동기로 인식한 정도 또한 노인 피고인보다 젊은 피고인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2024)에서 발표한 제17차 생명보험 성향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생명보험 가입자의 주된 생명보험 가입 이유는 의료비 보장과 가족 생활보장이었다. 사망보험이 가장이나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 시 경제력이 없는 유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신의기, 황만성, 2015), 노화에 따른 신체 건강 쇠퇴와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활동 능력 감소는 노인 피고인이 배우자 보험살인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1) 살인으로 검거된 범죄자 중 남성은 80.7%, 여성은 19.3%였음. 살인기수 범죄자 중 남성(207명)이 여성(84명)으로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경찰청, 2024).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성 참가자들은 노인 여성 피고인에게 가장 적은 양형을 부과한 반면 젊은 여성 피고인에게 가장 긴 양형을 부과하였다. 반대로, 여성 참가자들은 노인 남성 피고인에게 가장 적은 양형을 부과한 반면 젊은 남성 피고인에게 가장 긴 양형을 부과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가부장제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났을 수 있다.

남성 참가자들이 보여준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교통사고로 위장한 배우자 보험살인에서 여성 피고인보다 남성 피고인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판단을 적용했다는 선행 연구와 상충하지만(김유진, 김민지, 2021), 해당 연구가 피고인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 참가자들이 여성 피고인의 연령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달리 인식한 결과일 수 있다. 즉, 연구 참가자들이 여성에게 보통살인죄를 적용하여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높이 판단했으며, 특히 남성에게서 여성 피고인에 대한 형량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여성 피고인의 연령에 따라 차별적인 판단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공간지각능력이 뛰어나 운전 실력이 낫다는 인식이 존재하며(김정인, 박정열, 2006), 이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김유진, 김민지, 2021). 또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현재 운전을 하는 노인은 여성(7.1%)보다 남성(41.5%)이 훨씬 많아 노인 여성의 운전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 이를 종합할 때 남성 참가자들의 운전 관련 성별 고정관념

은 젊은 여성보다 노인 여성에게 더욱 강하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젊은 여성 피고인의 경우, 남성 참가자들에게 운전자 성별에 기반한 고정관념이 존재하더라도 젊은 여성이 노인 여성만큼 운전을 하는 데 큰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노인 여성 피고인보다 젊은 여성 피고인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고 긴 양형을 부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성 참가자의 노인 여성에 대한 인식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유교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가부장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성윤희, 정주리, 2019; 정소희, 김영호, 김병영, 2011), 가부장적 가정에서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은 ‘엄하고 권위 있는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를 의미하는 엄부자모(嚴父慈母)이다(고성희, 임성택, 2010; 서명석, 2009).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자녀 양육은 주로 어머니의 몫으로 규정되었으며, 여성 또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여전히 여성이 자녀 양육의 대부분을 책임졌으므로, 자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내적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가 클 수 있다. 가부장적 환경에서 성장한 남성이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Luddy & Thompson, 1997), 남성 참가자들은 전통적 가부장제의 가치를 유지하는 노인 남성보다 노인 여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노인 여성 피고인에게 관대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악녀 이론에 따르면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 여성은 여성답지 못한 존재로 여겨져 남성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노인 여성은 여성성과 성적 매력, 재생산 능력을 상실한 무성적 존재로 여겨지며(이동욱, 2014), 한국 사회

에서 구축한 성별-연령 체제를 통한 여성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전희경, 2013). 이러한 관점은 중년 이상의 여성을 일컫는 호칭인 ‘아줌마’라는 호칭의 사회적 의미를 통하여 재 확인된다. ‘아줌마’는 ‘아가씨’와 대비되는 존재로서 여성답지 못하고 젊음과 신체적 매력을 상실한 여성을 일컫는 호칭이다(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1). 이는 여성의 연령과 여성성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사회적으로 더 이상 여성다운 존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성 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유진, 김민지, 2021), 남성 참가자들의 노인 여성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판단은 악녀 이론이 규정하는 여성다움을 갖춘 여성상에 노인 여성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여성 참가자들이 노인 여성이 아닌 노인 남성 피고인에게 가장 적은 양형을 부과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수 있다. 과거와 달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은 여전히 존재한다. 노인 여성은 전통적 가부장제에 종속된 채 모성과 가사노동을 실천하고, 이에 대한 신념을 고수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 즉, 이들은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권력과 의무 간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성 역할 고정관념을 유지한 채 기존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기도 하다(이민아, 2010). 노인 여성은 남성중심사회에서 인내와 순종의 미덕을 지킬 것을 요구받고, 젊은 여성에게 자신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성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이동욱, 2016). 시간이 흘러 개인주의와 평등주의가 확산하고, 핵가족화가 진

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고부 갈등으로 대표되는 노인 여성과 젊은 여성 간의 권위주의적이고 상하지위적인 관계에서 형성되었던 사고관이 여전히 존재한다(최성희, 한명숙, 2011).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로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높아졌으나, 여성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2020년 45.0%에서 2023년 48.2%로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통계청, 2024). 그러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68.9%), 실제로는 아내가 주도하는 경우가 71.5%로 여전히 매우 높았다(통계청, 2024). 노인 여성과 젊은 여성 간의 갈등은 가사노동과 육아, 임금 노동의 이중고로 인한 젊은 여성의 고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며느리, 어머니, 아내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반면 마찬가지로 가정 유지의 책임이 있는 남편의 존재를 간과할 때 발생한다(권금주, 2004; 이동욱, 2016). 따라서 여성이 높은 수준의 성별 유사성을 지각하는 것과 별개로 가부장제나 남아선호 사상에 기반하여 노인 여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이들과 갈등한 경험은 호감이 아닌 배신감을 유발할 수 있다(Gramm, Schnell & Weatherly, 2006). 배신감은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저지르거나 오히려 저지르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유발할 때 발생한다(Koehler & Gershoff, 2003). 배신당한 개인은 피해 유발에 책임이 있는 존재를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Bies & Tripp, 1995; Koehler & Gershoff, 2003). 따라서 여성 참가자들은 오히려 노인 여성 피고인에

게 엄격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노인 남성과 노인 여성에 대한 인식이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탐색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이 연령과 처벌판단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로 연구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 남성과 노인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알 수 없다. 노인에 대한 인식은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결혼 상태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외에도 미디어에서의 노인 재현, 노인과의 접촉 및 교류 경험,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 노인 관련 교육 여부 등 개인의 경험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기선, 이정화, 2020; 이윤경, 2007; 홍현방, 2009).

또한, 본 연구는 판단자 성별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나, 판단자 연령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부장제적 가치관과 전통적 성 역할 규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 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높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보인다(주혜진, 2015).

그 외에도, 사건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 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특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판단자들은 평결 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ForsterLee, ForsterLee, Horowitz & King, 2006). 특히 본 연구가 피고인의 의도가 불분명한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 참가자들은 피고인 성별과 연령, 연구 참가자 성별 외에도 시나리오에 제시된 상황과 증거 또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심적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행위의 고의성과 책임을 주관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여부와 같은 사건 결과를 활용했을 수 있다(홍세은, 이현정, 허태균, 2018).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피해자와 판단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망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배우자 보험살인 사건을 다루었지만, 보험살인을 유발하는 다양한 범행 동기와 수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배우자 보험살인은 단순한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생활비 해결, 불륜 관계 유지 및 발각 우려, 배우자에 대한 원한과 불만, 유희비 마련 등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허영록, 2018). 또한, 과거에는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흉기나 약물을 이용한 살해, 추락사 등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22).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범행 동기를 단순히 금전적 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은 배우자 보험살인의 복잡한 양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배우자 보험살인 사건에서 피고인 성별과 연령, 연구 참가자 성별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연령에 대한 이중 규범이 처벌판단의 차이를 유발할 가능성을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금전적 이익 취득과 같이 전통적 성 역할 규범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지른 여성이라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보다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동기로 범죄를 저지른 여성이라도 연령에 따라 처벌에 차이가 나타나 악녀 이론의 한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론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는 변인의 영향력이 변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변인을 둘러싼 고정관념과 편향적 사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24). 2023 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 고성희, 임성택 (2010). 한국형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1(1), 45-64.
- 권금주 (2004). 며느리를 중심으로 본 고부 갈등 대처 요인 고찰 - Walsh의 “Family Resilience”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5, 108-136.
- 금융감독원 (2022).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rtId=56694&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A%B3%A0%EC%95%A1&pageIndex=1>에서 2024. 5. 25. 자료 얻음. 서울: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2015).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특성 분석 결과.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rtId=56694&menuNo=200218>에서 2024. 5. 25. 자료 얻음. 서울: 금융감독원.
- 김경미, 양혜영 (2005). 성역할 개념의 발달과 분화: 다차원적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3), 1-20.
- 김보람 (2023). 노인여성광고의 스테레오타입 유형에 따른 광고태도가 여성노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별과 노인혐오표현 경험을 중심으로. *광고PR실학연구*, 16(2), 51-75.
- 김성희, 이수정 (2022).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32(2), 117-152.
- 김시업 (2006). 여성 범죄자와 일반 여성의 분노특성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25-142.
- 김유진, 김민지 (2021). 판단자의 성 역할 고정관념과 피고인의 성별이 배우자 보험살인 사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17(1), 33-52.
- 김완태, 조문기 (2015). 복지전공 대학생들의 노인태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일어일문학*, 65, 287-302.
- 김은정 (2021). 광고 속 여성 노인 재현의 새로운 가능성: 배우 윤여정의 출연 광고 분석. *스토리앤이미지텔링*, 22, 89-119.
- 김정인, 박정열 (2006). 운전 능력과 운전 상황 스트레스에 대한 남녀 운전자들의 지각차.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4), 37-53.
- 박미량 (2017). 법원 조직 특성에 따른 정의·살인미수 양형선고에 있어서 법원 조직 특성의 영향력 연구. *한국범죄학*, 11(1), 169-197.
- 박순진 (2006). 배우자 살해의 유형과 특징.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 191-228.

- 백수진 (2011). 친밀한 파트너 살해의 성별 특성. *아시아여성연구*, 50(1), 93-130.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생명보험협회 (2024). 제17차 생명보험 이용 실태조사.
<https://www.klia.or.kr/klia/archive/trendSurvey/list.do>에서 2025. 1. 10. 자료 찾음. 서울: 생명보험협회.
- 손지선, 이수정 (2007).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1-17.
- 송승주 (2022). 피해자 나이, 피고인 나이, 노인차별 수준이 노인 성범죄 사건의 배심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명석 (2009). 동양의 양육전통인 엄부자모(嚴父慈母)를 둘러싼 시선과 눈짓. *교육사상연구*, 23(1), 1-14.
- 서은경 (2015). 한국 여성범죄자의 생애단계별 경험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윤희, 정주리 (2019).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 갈등의 매개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0(2), 547-567.
- 신식 (2007). 배우자살해의 특성과 동기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원우 (2017).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의 차이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5), 767-775.
- 신원우 (2011).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와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4, 135-163.
- 신의기, 황만성 (2015).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오현정, 신경아 (2019). 한국 언론은 '노인'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2010년 이후의 노인 관련 언론 보도 특성 분석. *PR 연구*, 23(4), 40-68.
- 원숙연 (2017).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탐색적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51(3), 225-256.
- 원숙연 (2014). 성-역할 고정관념의 지형변화와 여성정책에 갖는 함의: 1996 년과 2010년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3), 141-171.
- 이기선, 이정화 (2020). 노인관련 경험이 대학생의 노인이미지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성-연령집단별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0(6), 1267-1286.
- 이동욱 (2014). 노인여성의 몸과 미의 기준. *여성학연구*, 24(2), 123-157.
- 이동욱 (2016). 여성간의 차이와 노인여성운동의 가능성. *여성학논집*, 33(1), 69-97.
- 이동욱 (2023). 노인여성의 재현에서 고정관념과 역할모델의 가능성. *한국여성학*, 39(2), 103-140.
- 이동우 (2017). 여성노인의 다중 차별에 관한 고찰. *인권법평론*, (19), 63-79.
- 이민식 (2012). 양형에 대한 연령과 범죄경력 상호작용효과 검토: 살인범을 인범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6(2), 213-233.
- 이민식, 공정식, 이수정 (2009). 연령과 살인범의 양형편차: 비선형 효과의 검토. *형사정*

- 책, 21(1), 215-240.
- 이민아 (2010). 결혼상태에 따른 노인의 우울도와 성차. *한국사회학*, 44(4), 32-62.
- 이병희 (2001). *보험범죄론*. 대구: 형설출판사.
- 이상호 (2012). 유교의 부부 疏通에 관한 研究. *유교사상문화연구*, (47), 139-165.
- 이승철 (2009). 한국 노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형법법계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1(1), 29-58.
- 이신숙 (2007).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조모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479-490.
- 이영란 (2011). 범죄노인의 처벌에 관한 연구 - 노인연령별 차별화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15(3), 189-213.
- 이윤경 (2021). 생애주기의 연령기준과 연령구분에 대한 인식. *보건복지포럼*, 293, 38-54.
- 이윤경 (2007). 비노인층이 갖는 노인 이미지 연구. *한국인구학*, 30(2), 1-22.
- 이현주 (2015). 여성노인의 가사·돌봄 노동의 젠더불평등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5(3), 141-177.
- 장인권 (2010). *보험범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희경 (2013). 1960~80년대 젠더-나이체제와 '여성' 범주의 생산. *한국여성학*, 29(3), 41-79.
- 정소희, 김영호, 김병영 (2011). 남아선호 가정에서 성장한 기혼여성의 가족 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5(2), 97-128.
- 정순돌, 장명선, 이은진, 송보가, 김재민 (2021). 일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인의 다중차별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13(2), 171-216.
- 조설애 (2021). 배우자의 의미가 부부관계의 질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33(3), 143-187.
- 조은경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1), 1-21.
- 주혜진 (2011). 범죄에 있어서 노인의 양면적 지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7(1), 179-204.
- 주혜진 (2015). 젊을수록 강한 성평등 인식을 가지는가? - 성평등 인식의 연령효과 검증. *담론201*, 18(3), 35-68.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1). 심리적 구성체로서의 한국 아줌마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327-347.
- 최성희, 한명숙 (2011).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현대사회의 고부(姑婦)간의 가족문화 연구 - 며느리와 동거하는 시부모의 갈등,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사상과 문화*, 59(0), 391-415.
- 최혜지 (2016). 노인기준연령 상향조정 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 *월간 복지동향*, (216), 45-49.
- 통계청 (2024). 2023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행정안전부 (2024).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기록. 세종: 행정안전부.
- 홍영오, 김빛나, 손지선 (2019).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가족살인범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7.
- 허경미 (2004).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

- 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1-30.
- 허영록, 이수정 (2019).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3), 347-376.
- 홍세은, 이현정, 허태균 (2018). 처벌관단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도 불확실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101-118.
- 홍현방 (2009).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이미지 탐색연구. *노인복지연구*, 44, 327-343.
- Aldridge, M. L., & Browne, K. D. (2003). Perpetrators of spousal homicide: A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4(3), 265-276.
- Auerhahn, K. (2007). Adjudication outcomes in intimate and non-intimate homicides. *Homicide Studies*, 11(3), 213-230.
- Bates, E. A., Klement, K. R., Kaye, L. K. & Pennington, C. R. (2019). The impact of gendered stereotypes on perceptions of violence: A commentary. *Sex Roles*, 81, 34-43.
- Belknap, J., Larson, D. L., Abrams, M. L., Garcia, C., & Anderson-Block, K. (2012). Types of intimate partner homicides committed by women: Self-defense, proxy/retaliation, and sexual proprietariness. *Homicide studies*, 16(4), 359-379.
- Bies, R. J., & Tripp, T. M. (1995). The use and abuse of power: Justice as social control. *Organizational politics, justice, and support: Managing social climate at work*, 131-145.
- Campbell, J. C., Glass, N., Sharps, P. W., Laughon, K., & Bloom, T. (2007). Intimate partner homicide: review and implications of research and policy. *Trauma, Violence, & Abuse*, 8(3), 246-269.
- Canetto, S. S., Kaminski, P. L., & Felicio, D. M. (1995). Typical and optimal aging in women and men: Is there a double standar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0(3), 187-207.
- Champion, D. J. (1987). Elderly felons and sentencing severity: Interregional variations in leniency and sentencing trends. *Criminal Justice Review*, 12(2), 7-14.
- Chan, W. (2008). Exploring immigrant women's fears of criminal victimization. Metropolis British Columbia Center for Excellence for Research on Immigration and Diversity.
- Denno, D. W. (1994). Gender, crime, and the criminal law defense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5, 80.
- Eaton, J., & Struthers, C. W. (2006). The reduction of psychological aggression across varied interpersonal contexts through repentance and forgiveness.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2(3), 195-206.
- Evans, S. C., Roberts, M. C., Keeley, J. W., Blossom, J. B., Amaro, C. M., Garcia, A. M., ... & Reed, G. M. (2015). Vignette methodologies for studying clinicians' decision-making: Validity, utility, and application in ICD-11 field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15(2), 160-170.
- ForsterLee, R., ForsterLee, L., Horowitz, I. A., & King, E. (2006). "The effects of defendant race, victim race, and juror gender on evidence processing in a murder trial".

-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4(2), 179-198.
- Franklin, C. A., & Fearn, N. E. (2008). Gender, race, and formal court decision-making outcomes: Chivalry/paternalism, conflict theory or gender conflic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6(3), 279-290.
- Goulding, J. M., Yozwiak, J. A., Kinstle, T. L. & Marsil, D. F. (2005). The effect of gender in the perception of elder physical abuse in court. *Law and Human Behavior*, 29, 605-614.
- Gramm, C. L., Schnell, J. F., & Weatherly, E. W. (2006). Remedy seeking responses to wrongful dismissal: Comparing the similarity attraction and similarity betrayal paradigm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7(4), 266-290.
- Hawkins, M. J. (1996).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Persons. *Educational Gerontology*, 22(3), 271-279.
- Herzog, S. & Oreg, S. (2008). Chivalr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mbivalent sexism: Individual differences in crime seriousness judgments. *Law & Society Review*, 42(1), 45-74.
- Hochschild, A. R. (2009). 『감정노동』. 이가람 (역), 서울: 이매진.
- Hsu, H. F. & Wu, B. (2011). Female defendants and criminal courts in Taiwan: An observation study.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6, 1-14.
- Johnson, B. D., Van Wingerden, S., & Nieuwbeerta, P. (2010). Sentencing homicide offenders in the Netherlands: Offender, victim, and situational influences in criminal punishment. *Criminology*, 48(4), 981-1018.
- Kim, B., Gerber, J., & Kim, Y. (2018). Does the victim - offender relationship matter? Exploring the sentencing of female homicide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2(4), 898-914.
- Koehler, J. J., & Gershoff, A. D. (2003). Betrayal aversion: When agents of protection become agents of harm.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0(2), 244-261.
- Lu, H., Liang, B., & Liu, S. (2013). Serious violent offenses and sentencing decisions in China-Are there any gender disparities?.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8, 159-177.
- Luddy, J. G., & Thompson Jr, E. H. (1997). Masculinities and violence: A father - son comparison of gender traditionality and perceptions of heterosexual rap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62.
- Lutze, F., & Symons, M. (2003). The evolution of domestic violence policy through masculine institutions: From discipline to protection to collaborative empowerment.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2, 319-328.
- Manzi, C., Adorni, R., Giannella, V. A., & Steca, P. (2024). How to Age More Positively? Analyzing Determinants that Shape Attitudes Towards Aging.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31(1), 53-64.
- McKelvie, S. J. (2002). Effects of sex of judge and sex of victim on recommended punishment of a male murderer in a mock scenario. *Psychological Reports*, 91(2), 533-536.
- Messing, J. T., & Heeren, J. W. (2009). Gendered justice: Domestic homicide and the death penalty. *Feminist criminology*, 4(2), 170-188.
- Mueller-Johnson, K. U., & Dhimi, M. K. (2009). Effects of offenders' age and health on

- sentencing decisio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0(1), 77-97.
- Pica, E., Pettalia, J., & Pozzulo, J. (2017). The influence of a defendant's chronological age, developmental age, and race on mock jur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32, 66-76.
- Rupp, D. E., Vodanovich, S. J., & Credé, M. (2005).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ageism: Construct validity and group differenc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3), 335-362.
- Sample, J. K., & Woody, W. D. (2011). Juveniles tried as adults: The age of the juvenile matters. *Psychological Reports*, 109(1), 301-308.
- Sheahan, C. L., Pica, E., & Pozzulo, J. D. (2021). Abuse is abuse: The influence of type of abuse, victim age, and defendant age on jur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2), 938-956.
- Steffensmeier, D., Kramer, J. & Ulmer, J. (1995). Age Differences in Sentencing. *Justice Quarterly*, 12(3), 583-601.
- Thomas, K. A., Dichter, M. E., & Matejkowski, J. (2011). Intimate versus nonintimate partner murder: A comparison of offender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Homicide studies*, 15(3), 291-311.
- Tillyer, R., Hartley, R. D., & Ward, J. T. (2015). Differential treatment of female defendants: Does criminal history moderate the effect of gender on sentence length in federal narcotics cas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2(7), 703-721.
- Weiner, B., Osborne, D., & Rudolph, U. (2011).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reactions to poverty: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giver and the perceived morality of the receiv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5(2), 199-213.
- Wilbanks, W. (1988). Are elderly felons treated more leniently b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6(4), 275-288.
- Winters, G. M., Collins, C. M., Kaylor, L. E., & Jeglic, E. L. (2022). The impact of defendant gender and attractiveness on juror decision-making in a sexual offense case. *Deviant Behavior*, 43(4), 507-524.
- 1차원고접수 : 2025. 01. 31.
심사통과접수 : 2025. 03. 17.
최종원고접수 : 2025. 03. 30.

The Effect of Defendant Gender and Age and Juror Gender on the Judgment of a Spouse Insurance Homicide Case

Yujin Kim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Prior research on spousal homicide has primarily focused on cases arising from domestic violence or marital conflicts, with limited attention given to cases motivated by financial gain and the factors influencing punitive judgments in such cas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action effects of defendant gender, defendant age, and juror gender on punitive judgments. 400 adults in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indicated that female defendants were more likely to be convicted of intentional homicide than male defendants. Additionally, younger defendants received harsher sentences than older defendants. Regarding sentencing decisions, a three-way interaction effect was observed. Female participants imposed significantly longer sentences on younger male defendants. Despit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emale participants tended to impose more lenient sentences on elderly male defendants than on elderly female defendants, whereas male participants revealed the opposite patter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unitive judgment in spousal homicide cases may be influenced by biases related to gender and age, highlighting the need for judicial discussions that consider these factors.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it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spousal homicide, spouse insurance homicide, defendant gender, juror gender, defendant age, punitive judgment*

<부록> 시나리오

<공판>

30대 중반의 남성 김철수와 30대 중반의 여성 이지현은 부부이다. 김철수와 이지현은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각각 피보험자를 배우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여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최대 약 15억 원에 달하는 OO생명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김철수는 △△생명, □□생명 등 3개의 보험회사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료로 매달 합계 약 200만 원을 지급하여왔다. 이지현 또한 ◇◇생명과 ♣♣생명 2개의 보험회사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로 매달 합계 약 150만 원을 지급하여왔다.

201X년 X월 X일 김철수와 이지현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가졌다. 김철수는 새벽 1시경 ☆☆시 고속도로 하향 방면 20km 지점에서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차를 운행하였다. 조수석에 탑승한 이지현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대형 화물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김철수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이지현은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후, 김철수는 사고 발생 후 반나절이 지난 시간에 ◇◇대학교 병원에서 전화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리고 3일간 이지현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나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김철수는 교통사고 합의금, 화물차 수리비, 김철수의 치료비를 생명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었다.